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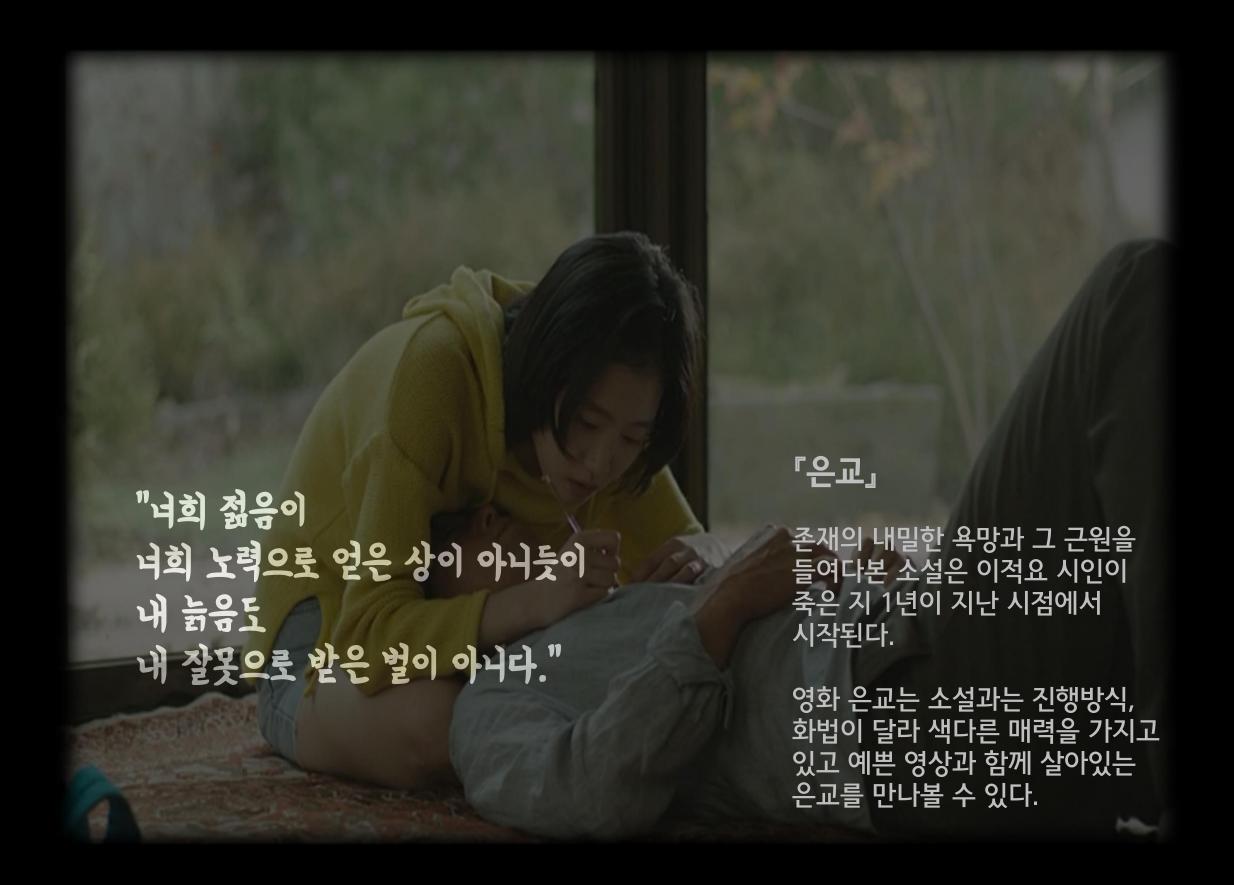


"진실을 결코 개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"

『도가니』

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교장과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으로,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

영화 도가니는 수화와 표정으로 말하는 학생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해진다.





"삶은 당신이 잠들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."

「당신, 거기 있어줄래요」

의료봉사중인 주인공이 한 노인에게 의문의 알약을 받고 30년 전 과거로 가는 이야기를 다룬 기욤 뮈소의 원작 소설

영화 당신, 거기 있어줄래요 는 원작의 따듯한 느낌을 잘 살리고 타임슬립을 잘 그려냈다.

『우리들의 행복한 시간』

불우한 사형수와 불안하고 냉소적인 젊은 여자가 만나 어긋나버린 자신들의 삶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소설

영화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 아련하고 안타깝게 다가온다. "남들한테는 먼지만한 가시 같아도, 그게 내 상처일때는 우주보다 더 아픈 거래요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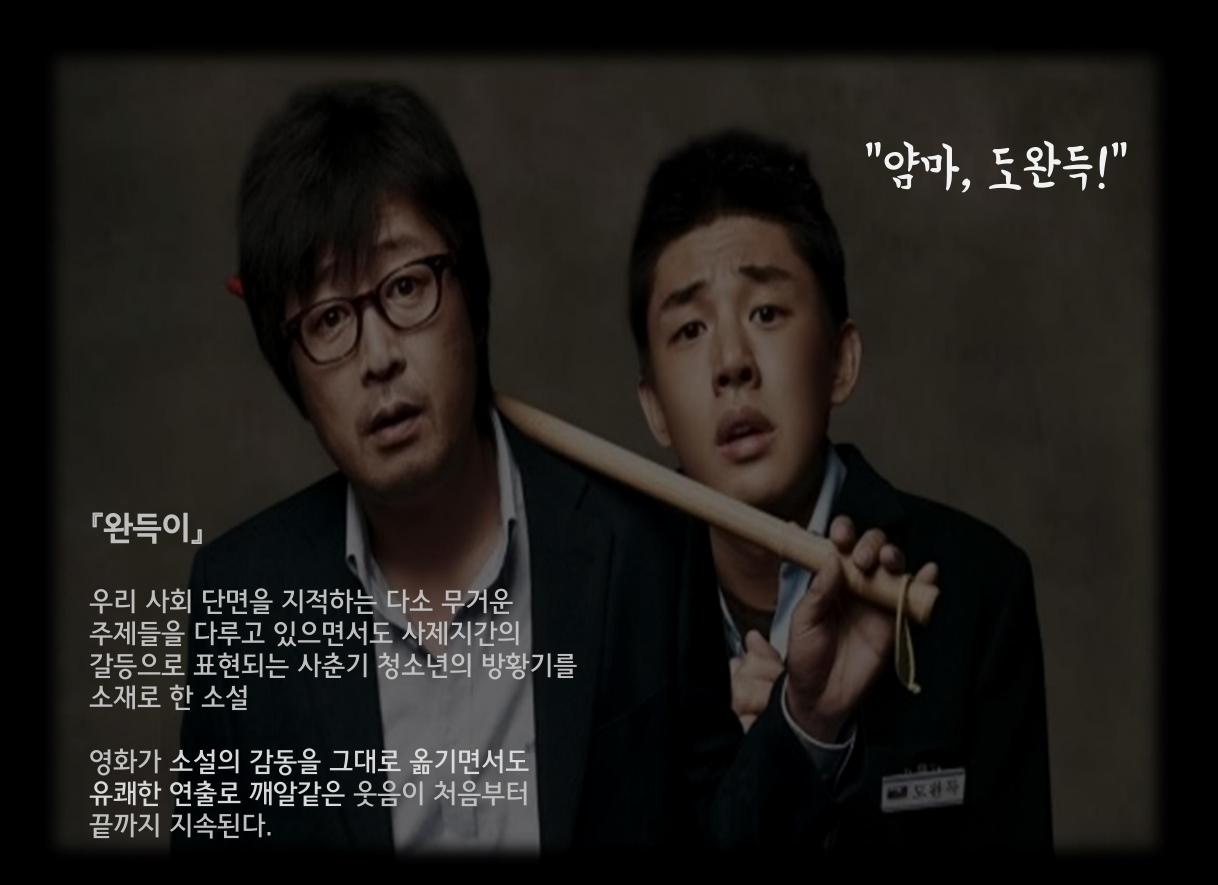


"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숙희"

「아가씨」

18세기 말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세라 워터스의 역사 스릴러 소설인 '핑거스미스'가 원작

영화는 1930년대 조선으로 각색하여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일본 여성 히데코와 백작, 하녀 숙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냈다.





"자식 잃은 부모에게 남은 인생 같은 건 없어"

「방황하는 칼날」

소중하고 귀한 딸을 망가뜨린 남학생들에게 스스로 처벌을 내리는 아버지의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

영화에서 책보다 조금 순화되었지만 좀 더 슬프고 분노를 치밀어 올라오게 만든다.